



'0.1톤' 打 대결

■ 금주의 프로야구

KIA, 롯데와 주중 3연전

최희섭-이대호 거포전쟁

“광주에서 0.1t 전쟁이 시작된다.”

‘빅초이’ 최희섭(28·KIA)과 ‘거인’ 이대호(25·롯데)의 주중 ‘빅고을’ 홈런포 맞대결에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말 잠실 2연전에서 타격감을 조절한 ‘빅초이’ 최희섭(28·KIA)이 22~24일 광주에서 열리는 롯데 3연전을 통해 홈 팬들에게 첫 인사를 한다. 일주일간 컨디션 점검을 마치고 지난 19일 두산전에서 첫 출전한 최희섭은 광주구장에서 한국 데뷔 첫 홈런을 노리고 있다. 한국 최고의 거포 본능을 키워내고 있는 최희섭은 키 196cm, 몸무게 106kg의 육중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상대 투수를 압도한다.

이에 맞선 롯데 이대호도 키 192cm, 몸무게 110kg으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다. 둘 다 포지션도 1루수, 타순도 4번으로 동일하다.

최희섭은 “고향에서 열리는 첫 경기라 그런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론 긴장도 된다”면서 “플스윙(홈런)으로 고향 팬들에게 화끈한 신고식을 하고 싶다”며 첫 홈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결에선 일단 이대호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최희섭은 아직 몸 컨디션이 70%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20일 잠실 두산전에서 10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 두 경기 평균 타율은 0.200으로 저조하다.

또 광주 홈 첫 경기다. 물론 지난 96년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3회 무등기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있지만 벌써 10년전 일이다. 낯선 환경에서의 빠른 적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지난 20일 두산전에서 5타수 2안타 1득점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국내 무대에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은 다행이다.

반면 이대호는 타격감이 최절정에 올라있다. 득점(23개)과 출루율(0.486) 부문에선 1위고, 타율 0.342(3위), 홈런 9개(3위), 타점 23개(5위), 안타 39개(6위), 장타율 0.640(2위) 등 도루를 뺀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KIA는 일단 22일 롯데전에 새 용병 제이슨 스코비를 선발로 예고, 최희섭의 홈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다. KIA와 SK가 맞붙는 주말 인천 3연전(25~27일)도 색다른 이벤트가 마련돼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다름 아닌 이만수 SK 수석코치의 ‘팬티 쇼’다. 이만수 코치는 지난달 29일 “앞으로 열리는 10번의 문학경기 전에 만원관중이 차면 속옷만 입고 그라운드를 돌겠다”고 선언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는 26일 KIA와의 문학전이다. 26일은 관중이 가장 많은 토요일인데다 전국적으로 팬이 많은 KIA와의 경기라서 ‘최희섭 효과’까지 겹친다면 2005년 개막전 이후 2년만에 정규시즌 만원도 바라볼 수 있다.

이미 26일 경기는 전체 2만9천석 중 단체표 중심으로 벌써 1만5천여석이 예매돼 매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저래 ‘최희섭 효과’로 재미있는 한 주가 될 듯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희섭	
생년월일	1979년 3월 16일
체격	196cm, 106kg
출신학교	광주일고-고려대
프로데뷔	1996년 시카고 컵스
홈런	메이저리그 5년 통산 40개

이대호	
생년월일	1982년 6월 21일
체격	192cm, 100kg
출신학교	경남고
프로데뷔	2001년 롯데 2차 1순위
홈런	프로통산 88개(21일 현재)



“빅초이 홈런볼 잡아라”

KIA ‘최희섭 바람 몰이’

주중 롯데전 행사 다채

첫 홈런볼 세탁기 경품

잠실벌을 갈라했던 토네이도급 ‘빅초이’ 태풍이 광주에 상륙한다.

KIA 구단이나 홈팬들은 최희섭의 홈 데뷔전에 벌써부터 들뜬 모습이다.

KIA 구단은 주말 두산 3연전부터 돌아친 ‘최희섭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롯데와의 광주 3연전(22~24일)을 다채로운 이벤트로 가득 채우기로 했다.

가장 큰 이벤트는 ‘빅초이 홈런볼을 잡아라’와 ‘빅초이 홈런 무료 입장 서비스’.

이번 홈 경기에서 최희섭의 첫 홈런볼을 주운 관중에게는 드림 세탁기를 증정하고, 최희섭이 첫 홈런을 터트린 날은 입장관중 전원에게 정규시즌 1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한다.

또 홈 경기 데뷔 첫날인 22일에는 ‘빅 초이 최희섭 홈 경기 데뷔 이벤트’를 마련, 최희섭의 입단 소감과 훈련 모습 등 다양한 장면이

◇프로야구 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 K	22	12	2	0.647	-	3승
2	한화	18	15	1	0.545	3.5	3승
3	L G	17	16	1	0.515	4.5	1패
4	두산	17	18	1	0.486	5.5	1승
	롯데	17	18	1	0.486	5.5	3패
6	삼성	15	17	2	0.469	6.0	1승
7	KIA	16	21	0	0.432	7.5	1패
8	현대	15	20	0	0.429	7.5	6패

담긴 영상물을 팬들에게 전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빅 초이’ 3행시 짓기에서 최고 3행시를 발표한 관중엔 디지털카메라도 증정한다.

이 밖에 막대 풍선을 제외한 타이거즈숍 내 모든 상품에 대해 20% 할인 판매가 실시되고, 지정석에 입장하는 성인 관중에 한해 무료 맥주가 제공된다.

KIA 구단 관계자는 “지난 주말 잠실전에서 ‘최희섭 효과’로 기록한 만원 관중 사례를 광주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많은 홈팬들이 최희섭의 홈 데뷔전을 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리그 홈런왕 ‘李’ 3연패 도전

오늘부터 인터리그 돌입

특유 몰아치기 가능성 커

타격자세를 바꾼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탄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시진)이 22일 시작될 일본프로야구 인터리그에서 홈런왕 3연패에 도전한다.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팀당 24경기씩 다른 리그 팀과 맞붙는 인터리그를 벌인다.

양대리그 교류전을 흥행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고 이승엽은 첫 해 홈런 12개로 공동 홈런왕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6개를 몰아쳐 홈런왕을 2년 연속 제패했다.

최근 6경기에서 타율 0.435(23타수10안타)를 때리고 홈런 3개에 타점 7개를 올리며 4번 주포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는 독무대나 다름 없는 인터리그에서도 여세를 이어가겠다는 자세다.

특히 홈런왕 타이틀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이승엽이 인터리그에서 센트럴리그이 부문 1위 타이론 우즈(18개·주니치 드래곤스)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시즌 11번째 대표를 등록한 이승엽은 이달 5개를 쏘아 올렸다.

월말까지 8경기가 더 남은 상황에서 이승엽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특유의 몰아치기로 홈런을 추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승엽은 초반 왼쪽 어깨 통증과 왼손 팔꿈치 현상 탓에 배팅 타이밍을 잡지 못해 페이스가 더뎠지만 17일 요코하마전에서 외다리 타법을 버리고 오른쪽 다리를 땅바닥에 밀착

하는 것으로 타격폼을 바꾼 뒤부터 팽타를 때려내고 있다.

17일 이후 그는 0.500(14타수7안타)의 높은 타율을 자랑하고 있다.

안타를 많이 때리면서 타격감각이 좋아졌고 굳이 큰 것 한 방을 의식하지 않아도 정확히 맞으면 장타로 연결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주니치전에서는 상대 에이스 가와키 미겐의 가운데 낮게 떨어지는 커브를 퍼 올려 150m짜리 대형 홈런포를 터뜨렸고 19일 경기에서도 나가타 겐이치의 몸쪽 직구를 잡아 당겨 우측 펜스 바깥으로 타구를 보냈다.

20일에는 아마모토 마사로부터 우측 펜스 상단을 직접 맞는 2루타를 맞아냈는데 나고야 돔의 펜스 높이가 4.8m로 도쿄돔의 그것(4m)보다 높았기에 홈런이 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이승엽의 컨디션이 절정을 향하고 있는 데다 폭발적인 페이스를 자랑했던 우즈가 최근 주춤해 홈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이다.

팀 승리를 위해서도 이승엽의 한 방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1일 현재 2위 주니치에 1게임 앞선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는 요미우리는 지난해 1위를 질주 하다 인터리그에서 13승23패로 밀리며 중위권으로 미끄러진 아픔이 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올해 인터리그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야 한다.

한편 주니치의 이병규(33)도 22일부터 처음으로 퍼시픽리그 투수들과 대결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24일 출격

‘플로리다 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이적 후 연습 길목에서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에이스 프레디 가르시아(31)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플로리다는 21일(한국시간) 김병현(2승2패·평균자책점 7.15)이 24일 오전 8시5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돌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필라델피아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14일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플로리다로 트레이드된 뒤 이적 후 첫 출격이었던 19일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에서 5.1이닝 6안타 3실점(2자책점)으로 승리투수가 된 김병현의 연속 도전이다.

김병현은 필라델피아전에 2차레(1차레 선발) 등판해 승수 없이 평균자책점 5.87로 좋지 않았다.

콜로라도 소속이던 2005년 7월29일 6.2이닝 9안타 2볼넷 4탈삼진으로 5실점한 악몽이 남아 있다.

우완 가르시아는 통산 116승을 올린 정상급 투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